

벼랑 끝 삼성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조동찬 “악! 또 병살”…나주환 “좋아! 또 병살” SK 유격수 나주환(오른쪽)이 5회초 삼성 박석민 땅볼 때 2루수 정근우의 토스를 받아 선행주자 조동찬을 아웃시키고 1루에 볼을 뿌린 뒤 중심을 잃고 나뒹굴고 있다. 2회에 이은 삼성의 두 번째 병살타였다.

대구 |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SK는 전성기 야구르트와 닮은꼴



전병두 이승호 엄정욱

불펜은 1회부터 몸 풀고 타자는 한방보다 팀배팅

문학과 달리 대구구장은 따로 불펜이 없다. 덕아웃 앞에서 대기 투수들이 몸을 푼다. 다음에 누가 준비하는지가 바로 노출된다.

18일 3차전, SK 불펜은 1회 시작하자마자 눈이 핑핑 돌아갈 정도로 움직였다.

카도쿠라가 첫 타자를 상대하자마자 전병두가 몸풀기를 시작하더니 5회까지 지속됐다. 그 결에서 2회 큰 이승호, 3회 작은 이승호, 4회 엄정욱이 투구를 시작했다.

최일언 투수코치가 “2차전에서 정우람이 몸을 6번 풀었다”고 했던 말이 과장이 아님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렇듯 SK 불펜들의 노고는 잦은 등판만으로 셀 수 없다. 숫자에 찍혀 나오지 않는 노력은 더하다. 특히 삼성을 맞아 좌완 불펜의 활용 가치가 커지면서 정우람, 작은 이승호는 상시 대기나 마찬가지다. 삼성 투수인 정현욱조차 “아무리 힘이 안됐고, 유연하다 할지라도 정말 대단하다”고 탄복할 정도다.

각도는 다르지만 타자들도 개인 욕심을 버리고 팀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마인드는 마찬가지다. 세키가와 타격코치는 “2차전 최정의 역전 홈런도 대단했지만 그 앞에서 불넷을 얻어내 출루한 이호준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4번타자부터 한방보다는 출루를 염두에 두고 있고, 베테랑 타자들의 솔선수범은 곧 ‘치지 못해도 점수를 짜내는’ SK 야구의 특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세키가와와는 “SK는 V9시절 요미우리보다 노무라 감독이 지휘한 90년대 야구르트 같은 팀”이라고도 했다. 나가시마와 왕정지 같은 겉출한 스타 없이 적재적소의 선수 투입으로 효율성 극대화를 실현한 야구르트를 떠올린 것이다.

대구 | 김명준 기자 gatzby@donga.com

삼성 ‘1차전 쇼크’가 이렇게 크다니

KS 핫이슈

| 이빨 빠진 사자, 무기력한 경기 왜?

KS 1차전 김광현 맞아 5회초 역전 성공 ‘필승 계투조’ 붕괴 재역전패…후유증 커 PO때 피로·긴장 풀리며 집중력 하락도

삼성이 너무도 무기력하다. 두산과의 플레이오프(PO)까지만 해도 패기와 투지가 넘치는 맹수처럼 강한 근성을 발휘했지만 SK를 상대한 한국시리즈(KS) 들어선 ‘이빨 빠진 사자’마냥 맥없는 경기를 거듭하고 있다. 준PO와 PO가 나란히 최종 5차전까지 펼쳐지면서 명승부가 속출한 덕에 한껏 달아올랐던 올해 포스트시즌의 열기도 KS 접어들어 급랭하는 분위기다.

삼성은 적지 문학에서 펼쳐진 KS 1·2차전을 각각 5-9, 1-4로 내준데 이어 18일 안방으로 옮겨 치러진 3차전마저 2-4로 완패해 말 그대로 공기에 물렸다. 현재로선 19일 4차전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치욕적인 4연패로 홈에서 SK의 우승 행가래를 구경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를 일이

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4연패로 초라하게 무너진 경우는 모두 5차례 나왔는데 그중 삼성이 2번(1987~1990년)에 걸쳐 각각 해태와 LG의 들러리 역할을 했다.

두산과 PO 5게임을 치르는 동안 내리 1점차 명승부를 연출한 삼성이 SK에 이토록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단 안팎에선 15일 1차전의 재역전패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다. SK 에이스 김광현을 맞아 5회초 3-2로 역전하고도 5회말 불펜의 붕괴와 더불어 단숨에 3-5로 흐름을 빼앗긴 채 패한 후유증 탓이라는 지적이다.

선발 레임이 5회말 SK 선두타자 정근우를 불넷으로 출루시키자 선동열 감독이 잇달아 꺼내든 ‘권혁~권오준~오승환~정현욱’의 계투 카드가 결과적으로 패착이 되면서 잡을 수도 있었던 1차전을 내준 영향이 선수단 내부적으로도 길게 안운을 드리우고 있다는 얘기가. PO를 거치면서 쌓인 피로와 긴장이 한꺼번에 풀어지면서 2·3차전에선 타자들이 집중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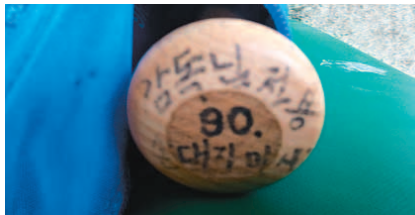
권혁 오승환 정현욱

분석이다. 또 “겨우 3점 내고 SK를 이길 생각은 아니었을 테지만, 5회부터 무리하게 불펜의 필승조를 싣 털어넣으며 너무 일찍 승부를 건 것 아니냐”는 탄성도 들린다.

삼성 프런트 직원들은 18일 3차전을 앞두고 정례(주례) 미팅을 했다. 그 자리에선 “끝까지(선수단 지원에) 최선을 다해 마무리를 잘 하자”는 결의와 더불어 “1승만이라도 거두고, 잡실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타진됐다고 한다. 4연패로 허무하게 주저앉으면 팬들을 대하기도 부끄럽다는 소리에 다름 아니다.

대구 |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순간포착 감독님 전용 배트



한국시리즈 3차전을 앞둔 18일 대구 구장, 문학에서 2패를 당하고 홈으로 돌아온 삼성 선수, 코치들이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라운드에서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다. 텅 빈 덕아웃에는 오직 한 명 선동열 감독만 자리를 지키고 앉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훈련장면을 지켜봤다. 그리고 선 감독과 함께 덩그러니 그라운드에 홀로 남은 배트 하나. 누구하나 손대지 않은 배트에는 ‘90년’의 등번호가 선명했다. 그리고 부연설명 ‘감독님 전용 손대지 마시오.’ 수비코치들이 주로 사용하는 평고용 배트, 그러나 감독 전용이므로 절대 손대지 말라는 ‘살벌한’ 경고 문구였다. 역시 선 감독의 카리스마는 덕아웃 구석구석까지 닿아있었다.

대구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채태인, 나갔다 하면 삼진 “현수가 이런 기분이었나?”

■ 런던운

“현수가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3차전을 앞두고 삼성 채태인은 한숨을 푹 쉬었다. 그리고 “아니다. 현수는 어떻게든 배트에 공이라도 맞히고 죽었지, 내는 나갔다 하면 삼진입니다”라며 허탈하게 웃었다.

하필 1년 중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시작된 지독한 슬럼프다. 채태인은 플레이오프부터 페이스가 좋지 않았다. 5경기에서 14타수 2안타, 타율 0.143에 삼진을 6개나 당했다. 한국시리즈 1차전 8회 대타로 나가 오랜만에 좋은 타구를 날렸지만 유격수 직선타로 잡혔다. 2차전도 2타수 무안타. 단 한번도 1루를 밟지 못했다.

채태인은 “플레이오프 때 (김)현수를 보니 까, 허탈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니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는 울고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마침 채태인 앞을 지나가던 진갑용도 그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한마디를 건넸다. “네가 죽으면 팀도 죽는다. 빨리 살아야지.” 채태인은 선배의 따뜻한 마음에 큰 힘이 됐는지 미소를 되찾았다. “예! 오늘 저도 3안타, 형님도 3안타 꼭 치는 겁니다.”

그러나 삼성의 분위기 메이커 진갑용은 또 한번 채태인에게 큰 웃음으로 격려를 대신했다. “나? 오늘 현재유이 나가서 경기 안 땀다. 너 혼자 몽땅 다 쳐라.” 하긴 채태인도 선발명단에 빠져있었는데….

대구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김감독, 배영수 조준 1차전 라인업 복원 선감독, 5번 타순 무안타…박한이 투입

■ 3차전 라인업 막전막후

2승의 SK, 2패의 삼성. 천양지차인 두 팀의 처지는 3차전 선발 라인업에 그대로 투영됐다. SK 김성근 감독은 1차전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라인업을 꺼내든 반면 삼성 선동열 감독은 테이블세터와 더불어 클린업트리오까지 손댔다.

김 감독은 2차전 때 삼성 선발이 좌완 차우찬이라 1차전 수훈갑 김재현마저 선발에서 제외했지만 3차전에선 삼성 선발 배영수에 맞춰 1차전 라인업을 복원시켰다. 어떻게든 3차전을 잡고 싶은 의지의 표현인 셈.

■ 빅마우스



●그렇게 못 믿나?(SK 김성근 감독, 김광현을 4차전에 절대 안 쓴다 하는데도 기자들이 가능성을 따져 묻자)

3차전 삼성 라인업의 가장 큰 특징은 두산과의 PO부터 주로 1번 또는 3번에 세웠던 박한이를 처음 5번에 배치한 것. KS 1·2차전에서 5번 타순이 7타수 무안타로 웬하니 뚫린 점을 의식한 포석이다.

다만 1·2차전에서 6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던 4번 최형우와 6타수 3안타로 나름의 몫을 다한 3번 박석민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는 5번이 제격인 채태인이 PO부터 이어온 슬럼프에서 좀처럼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교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채태인은 결국 이날 스타팅으로 나서지 못하고 대신 조영훈이 7번 1루

- 볼이 너무 좋으면 오히려 더 걱정이 돼요. (SK 김광현, 1차전에서 3회까지 막강하다가 갑자기 무너진 데 대해)
- (김성근) 감독의 스타일, SK 색깔의 야구를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SK 클로버, 당장 오늘이라도 마운드에 올라가라면 팀을 위해 던지겠습니다)
- 참피해서라도 잠실에 갈 겁니다. (삼성 박한이, 홈대구에서 SK 우승을 지켜 볼 수는 없다며)
- 어차피 갑돌이도 땀안타야. (삼성 선동열 감독, 선발포수로 현재유이 나서면 타격이 약해지지 않겠느냐는 말에 진갑용도 한국시리즈에서 안타가 없



수로 선발출장했다.

박한이가 5번으로 이동함에 따라 1번은 포스트 시즌 들어 살아난 이영욱, 2번은 조동찬이 맡았고 9번에 김상수가 포진했다. 또 배영수의 맞춤형 포수인 현재유이 진갑용을 대신해 8번에 들어갔다.

대구 |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긴 마찬가지라며) ●한 것도 없는데 입술만 터지네. (삼성 조동찬, 입술 오른쪽 부위가 터진 것을 보니 피곤한 모양이라고 하자 자신은 지금까지 한 게 없다며)

편집 | 김남은 기자 kne81@donga.com